

무기력하고 주저앉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말씀: 요한복음 5:1-15

요절: 사도행전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38년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상실하고 체념과 운명의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하는 말씀으로 그의 가슴에 꺼져가던 소망의 불씨를 지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이 시간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I. 네가 낫고자 하느냐 (1-6)

1,2절을 보십시오. 그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설날같은 큰 명절이 이르면 서울에서 고향으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절 때가 되면 전국 각 곳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예배드렸으며, 일주일씩 계속되는 명절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나라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여러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들 중에 특별히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메에-메에-’ 하며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폭은 50-67m이고 길이는 96m 정도이며 네 귀퉁이마다 하나의 행각이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행각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행각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병명을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두운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백주에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맹인, 걸을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다리저는 사람, 그 인생요절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까. 어떤 자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어떤 자들은 쪼그런 자세로 누워 있었고, 어떤 자들은 큰 대자로 누워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포즈를 취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못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하여 이 베데스다 못가는 전국에서 연일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자주 내려온다면 병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텐데 천사는 가끔 못에 내려왔습니다. 가끔씩 못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자는 다 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베데스다 못의 경쟁률도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오직 일등 한사람만이 낫게 됨으로 경쟁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간발의 차이로 할지라도 2등부터는 옷만 적시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고 위로하며 우정과 친목도 돈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어제의 친구요 동지가 오늘은 치열한 경쟁자요 원수로 변하였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마치 사생결단한 사람들처럼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못가는 바로 인간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합격선을 기준으로 이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영광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실 실력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오자요,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합격자, 승리자, 당선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찌까지든 한술밥을 먹으며 한 당에서 한 이념을 가지고 투쟁했던 정치인들도 막상 대권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서로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물고, 뜯고, 온갖 보기 흉한 모습들을 연출해 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투쟁을 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칼을 갈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서로 서로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고 자비와 박애정신을 노래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권과 관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상대방의 승리가 곧 나에게 패배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 나의 승리가 상대방에게는 슬픔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딜레마요, 에덴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 사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사회는 점점 반칙이 성행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일단 먼저 들어가는 자의 손이 올라가고, 그들에게만 모든 영광과 찬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특히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와! 무슨 병을 38년 동안이나 앓아왔단 말입니까? 38년이면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긴긴 세월입니다. 그는 그 긴긴 세월동안 병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병에서 나을 받고자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패만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못 가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가 처음 베데스다 못 가에 왔을때만 해도 이곳에서는 나을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가운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든 밤중에 일어나 달빛아래 체조도 하였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깅도 하며 다이빙 연습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베데스다 못에 먼저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일등을 놓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 번에는 꼭 먼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물이 여러 번 움직였어도 그는 언제나 옷만 적시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희망을 잃어가다가 이제는 체념과 자포자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해도 안된다는 패배감과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병든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베데스다 못에서도 가장 양치바른 곳을 찾아 가장 편한 form으로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곳 베데스다를 심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38년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6a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38년 동안이나 병든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소망스러운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38년된 병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서 아예 관심을 돌리고자 하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고자 합니다. 아마 그의 부모도 처음에는 자주 베데스다 못에 찾아와서 ‘삼팔아! 힘을 내! 용기를 내! 칠천 팔기라 하지 않았더냐!’ 하며 많은 격려를 하였을 것이지만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애인도 처음에는 빠알간 장미꽃을 들고 찾아와서 ‘삼팔씨! 다음에는 38씨가 꼭 첫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하며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는 말없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소망 없는 바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운 것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실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누워있는 포즈와 그의 험쭉한 얼굴과 안개 낀 듯 흐리멍덩한 눈빛만을 보시고도 그의 병이 벌써 오랜줄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운명주의 속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다? 6b절을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낫고자 하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못 가에 와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상실하고 체념과 절망 속에 누워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나을 소망이 없는 자라는 체념과 자포자기 속에 누워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아셨습니다. 깊은 패배주의와 운명주의를 아셨습니다. 이를 아시면 그냥 낫게 하여 주시지 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까? 이는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병에서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병에서 나을받을 수 있는 치료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소원과 나아야겠다는 열망과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마음에 소원이 없을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당신의 권능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기 위한 마음의 준비는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어느사이엔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도 잊어 버렸습니다. 나아라 되겠다는 필요성도, 낫고자 하는 소원도 잃어 버렸습니다. 어느 때 부턴가는 베데스다의 맨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과연 이번에는 누가 먼저 못에 뛰어드는가 망원경으로 관람을 하

고, 사진을 찍고, 그들이 내는 축하 떡을 받아먹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낯은 것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의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소망의 불씨를 꺼 버리고, 믿음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38년된 병자와 같이 마음에 깊은 절망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양치는 것은 못하겠어, 해 봤는데 안돼” “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영어와는 담 쌓았어. 그래서 세계선교는 못해” “나는 정육의 유혹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종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축구는 자신 있지만 전공공부는 어쩔 수가 없어. 목자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사진이나 찍어주고 박수나 쳐줘야지 뭐.” 아직 나이는 20대, 30대 팔팔한 젊은이이건만 이처럼 각종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38년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네가 너의 운명을 극복하기 원하느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찌어다.” 그러자 즉시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II.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7-15)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자신의 병이 지금까지 낫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입술을 열자마자 자신을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을 토하여 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며 자기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자기 인생이 요모양 요꼴은 아니었을 텐데 하며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인간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쓴 물을 토하여 내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자신도 못에 들어가고자 시도하여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하여 보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고 하며 경쟁에서의 깊은 패배감과 열등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원망과 불평에 맞장구를 치셨습니까? ‘그래요? 참으로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군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버려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네 운명의 돛자리를 거두어 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깔고 뭇개며 누워있던 운명의 돛자리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그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무기력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의존심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체념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립하여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깔고 뭇개며 누워있던 운명의 돛자리를 거두어들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누울 생각을 하지 말고 거두어 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병든 삶의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소망 없는 삼팔이! 의존심과 무기력, 안일과 정육, 패배주의 운명주의에 깊이 찌들어 있는 소망 없는 삼팔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소망 없는 자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모든 무기력의 자리, 안일과 정육의 자리, 패배감과 열등감의 자리, 슬픔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히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청년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a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운명의 돛자리를 거두어 들고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감격과 환희에 찬 음성으로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음성이 그를 낫게 하였고 일어나게 하였고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인생 독본의 저자 톨스토이의 말도 들었고, ‘해탈하라’는 부처의 말도 들었고,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그를 누워있는 삶에서 일어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앞길을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스승의 말도 들었고,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도 들었고, 애인의 격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음성도 그를 그 깊은 무기력과 정욕과 안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의 음성도 그를 그 깊은 패배감과 열등감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38년 된 고질병에서 곧 나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깊은 무기력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절망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에는 죽은 자들을 살어나게 하는 부활과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말씀으로 38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걸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5:25)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병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불신과 운명의 못자리를 거두어 들고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농아인 축구 감독을 거쳐 현재는 북한의 농아인 축구감독을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전북 남원의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도 원불교 정녀이고, 자신도 원불교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원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소록도를 7년 동안 오가며 봉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부처에게 산 제물로 드리고자 도루코 면도날로 ‘불’자를 새기며 피를 줄줄 흘렸습니다. 향불로 몸을 지지면서 ‘불’자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소록도에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금강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흘러 나왔습니다. 찬송가 606장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7년 동안 소록도를 드나들면서 한센병 환자들이 부른 찬송가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가사들이 무의식 중에 입력이 되어서 나중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스님 후보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를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깨 너머서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스님이 되고자 했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전생애 업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과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가서 농아인들을 위한 축구단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민교 선교사는 장애인들이 마약과 폭력, 무기력 가운데 있다가 축구를 통해 영육 간에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2013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최초의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 감독이 됩니다. 모슬렘 땅과 북한 땅에 축구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간증집을 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 후보생이 한센병 환자들의 찬송을 듣고 말씀이 역사해서 변화된 것도 놀라웠습니다. 모슬렘권에 축구선교를 통해 길을 뚫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까지 가서 장애인 축구팀을 만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복음으로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그를 볼 때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같은 일들이 가능할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도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모슬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변화됩니다. 장애인들도 운명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8년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된 병자가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뜻밖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부딪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신과 근심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일어났다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나음 받은 은혜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 그가 그동안 38년 동안이나 병든 고통의 삶을 살게 된 진정한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경고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님께서 나음을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믿음의 삶,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불신의 죄에 빠질 때, 다시 인간에 대한 의존심과 정욕과 안일의 죄에

빠질 때 전보다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8 병자의 삶에서 나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굳게 붙들고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그를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음성으로 명령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립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운명의 돛자리를 거두어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살아 계신 주님을 믿고 힘차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